

행정감사·예산심의 대비 ‘현장정책회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순천·남해·여수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13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순천·남해·여수 등의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소관부서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등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내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친환경 무인 관광열차 ‘스카이큐브’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수행한 후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현안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12일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 13일 여수광양 항만공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13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순천·남해·여수 등의 관련 현장을 살펴보고 소관부서 현안 업무를 점검하는 등 현장정책회의를 추진계획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장방문 등을 비롯해 도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의 현안 사업 및 예산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회 및 논의를 벌였다.

김종배 위원장은 “위원회 의정활동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소관부서 등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며

“특히 올 한 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철저하게 준비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설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김종배(민주·시흥4)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국민의힘·이천2)·이기형(민주·김포4) 부위원장과 김동영(민주·

남양주4), 김동희(민주·부천6),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오석규(민주·의정부4),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유형진(국민의힘·광주4), 이영주(국민의힘·양주1), 이흥근(민주·화성1) 의원이 참석했으며 도 집행부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김인창 기자

안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최

오는 23일까지 진행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산시의회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안산시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 의사일정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가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의결하게 되며 오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임시회 부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해 총 28건이고,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은경·황은희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황은희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외국인 관련 지원 정책 및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행정절차 사전 이행을 위한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동료 의원들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 로드맵과 시민행복이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경주할 때 국민이 지방자치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송수 기자

병원 내 보행자 교통안전 방안 모색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

도의료원 안성병원 방문

경기도의회 황세주(민주당, 비례) 의원은 경기도의회 박재용(민주당, 비례)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방문해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이동통신 확보 △병원 부출입문 설치 △주차장 확보 등을 논의했다.

병원을 방문한 황세주 의원은 “안성병원이 지난 2018년 3월에 현재 부지로 신축 이전한 이후 병원 주변 거주 인구가 많아지는 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성병원이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에서 인정받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의원은 “현재 교통약자가 병원 서쪽 출입구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병원 북쪽에 자리한 삼성그린아파트 단지과 병원을 연결하는 부출입문을 지역사회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발전 전을 위한 구조물이 안성병원 서문 보행로에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 놀랐다”고 하면서 “휠체어나 유아차를 탄 환자는 병원 서쪽 문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통약자가 정문을 이용하더라도 보행로가 휠체어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방문 보행자 교통안전 방안을 위한 이동통신 확보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 유아차가 맨홀 뚜껑에 빠져 다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돼 위험하다”고 하면서 북쪽 부출입구 설치 등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승관 안성병원장은 “보행자 교통안전과 이동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서쪽 출입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 보행로를 확보하

고 인근 삼성그린아파트 단지와의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 밖에 병원 관계자들은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점검해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의회 단신

광주시의회 24개 주요 안건 심사 돌입

제304회 임시회 개최

광주시의회가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비롯해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8건 등 주요 2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8~19일 양일간 집행부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 및 추후 진행 계획을 검토하고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을, 도시환경위원회는 ‘광

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표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2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비롯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심도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구학모 기자

‘해병대 사령관기 태권도대회’ 참석

정해권 인천시의회 위원장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국민의힘, 연수1·사진)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인천상륙작전 승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인천글로벌캠퍼스 강당에서 개최된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제1회 해병대 사령관기 태권도대회’에 정해권 위원장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과 9·15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해병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품새·겨루기·태권체조 경기 참가자 900명과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군악대, 해병대 수색대 등 총 15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글로벌캠퍼스 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정 위원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해병 출신으로서 이번 대회의 첫 개최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는 육체의 단련뿐 아니라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수양하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를 단련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종삼 기자

의회 견학 추진·지방의회 역할 강조

인천 연수구의회

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 10·12일 2일간에 걸쳐 연수유치원 6~7세 60명을 대상으로 연수구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수유치원 어린이들은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장과 의회 시간 및 사진촬영시간을 가진 뒤 구의회 홍보영상을 시청해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회 건물 내부 방청석, 의장실·부의장실을 견학하고 상임위원

회실 의사봉 체험 등을 통해 구의원이 하는 일을 체험하면서 연수구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구의회는 올해 의회견학 프로그램 총 13회 운영했으며 연수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견학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였다”며 “앞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동수 기자



옥외광고 LED전광판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 드립니다.
서울시청·명동·동대문·종로3가·강남·홍대 등 다수지역 송출